

지상고가→저심도 변경·푸른길 훼손 최소화 등에 사업비 7000억 '깡충'

도시철도2호선 건설 고민 커진 광주시

2013년 기본계획 당시 사업비 맞추기 '꼼수 행정'

사업 재검토와 사업비 증가 논란이 일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애초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졌다. 지상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방법이 변경되면서 최소 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푸른길 공원 보존과 차량 규모 확대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이 4000억원에 달해 최대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착공은 지연됐지만 최대한 빠른 공사 방식을 선택, 계획대로 2025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도시철도공사 문범수 본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방식이 지상고가

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된 것과 푸른길 통과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돼 시가 기본설계를 중단하고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지상고가(地上高架) 방식에서 땅속으로 가는 저심도(低深度)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최대 3000억원(15.2%)이 추가됐다. 애초 지하철 길이를 2.5m 잡았으나 설계 과정에서 4.3m로 길어지는데 지상이 아닌 땅속으로 건설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건설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민선 6기 운영형 시장 출범 이후 푸른길 훼손 최소화,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지하주차장 건설 등 민원이 제기되

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1400억원에 달했다. 급행열차 도입, 차량규모 확대, 정거장 형식변경 등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면 2600억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윤 시장 취임 이후 건설 재검토, 안전성 검증 TF운영 등 1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물가상승분까지 더해져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기본계획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승인된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 본부장은 "건설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3000억원 넘게 추가되고 저심도 방식 건설에 따라 1000억원 상당이 증가

됨에도 일부 구간을 지하철이 아닌 노면으로 변경해 사업비 증가가 없는 것처럼 계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증액과정과 이유를 밝힌 것은 최근 운영형 광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낯 행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시민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고, 소통을 위해서는 '정직한 민낯'이 되어야 한다는 윤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본부장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용을 줄이고 오는 11월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자” 2015 영호남문화대축전

18~20일 대구 두류공원 일대 국회의원·기자채장 등 대거 참석 지역의 벽 넘어 상생·화합 다져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18일 오전 11시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에서 영호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이 열린다. 광주시보와 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벽을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결의하는 의미에서 '상생·화합'이라고 적힌 대형 화분에 화수(和手)를 뿌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 영호남에서 재배·수확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영남과 호남의 쌀로 만든 화합떡판에 '영남/상생/호남'이라고 적힌 떡판을 자르는 '축하 떡 절단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홍보관엔 호남 35개·영남 35개 등 총 70개의 지역 농·수·축산물 특산물 부스

■ 국민대통합 영호남 문화대축전 주요일정 (장소: 대구 두류공원)

일시	행사
18일 (금) 교류의 날	• 개막식(오전 10시) • 지역특산물 반짝 경매 • 전통 각설이 공연
19일 (토) 상생의 날	• 영호남 REC 한마당 (영호남 기네스·명물찾기·팔씨름 대회)
20일 (일) 화합의 날	• 동편제 서편제 판소리 대전 • 생활예술단체 공연

※ 농·수·축산물 홍보부스 호남35개·영남 35개 운영
영호남 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이어진다. '교류의 날'인 18일엔 지역 특산물 중 일정량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산물 반짝경매', 그리고 '전통각설이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상생의 날'인 19일엔 영호남 기네스·명물찾기·팔씨름대회 등 '영호남 REC 한마당'이 열린다. 마지막날이자 '화합의 날'인 20일엔 젊은 소리꾼들이 펼치는 동서화합 판소리대전이 선보인다. 소리꾼 김수경·김진아씨 등 2명은 하루 한 차례씩 동편제·서편제 팀으로 나눠 공연을 열 예정이다. 또 영호남 생활예술공연단체도 노래·공예 등 그간 갖고 있던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두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일 기회로,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발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축산차량 방역 17일 나주시 금천면 닭·오리농가 주변 도로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차량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 1만4300마리를 살처분한 뒤 전남·광주지역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18일 하루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나주·강진 오리농장에 AI...가금류 이동중지

전남도내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은 18일 하룻동안 일시적으로 외부이동이 중지된다. 최근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전남도의 고육책이다.

전남도는 17일 "시·군과 함께 방역대책상황실 2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18일 0시부터 24시까지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차도 멈추나...노조, 파업투표 72.8% 찬성

지역경제 주축인 금호타이어가 최장기간 파업과 직장 폐쇄 파국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조마저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함에 따라 지역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4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6일 전체 조합원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72.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후 실제 파업 돌임 여부는 급속노조기아차지부장과 각 공장 지회장 등 75명으로 꾸려진 노조 재구성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아차 노조는 일단 18일로 잡힌 9차 분교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이 예년과 달리 파업으로 가기까지는 녹록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을 볼 때 국내 경기 전반에도 파업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7층 (062)226-0001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 신성자동차(주) 광주 경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7층 (062)226-0001

정부지원 표준 연비 및 환급 | E 200 1,991cc, 1,635kg, 7G-TRONIC PLUS, 4000회/12.8km/ℓ(도시상행) 10.5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4.6km/ℓ, 38.92회/100km(복합상행) 14.2km/ℓ, 33.65회/100km(도시상행) 14.2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9.8km/ℓ, 18.92회/100km(복합상행) 12.6kg/ℓ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4000회/14.1km/ℓ(도시상행) 12.4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7.0km/ℓ, 28.99회/100km(복합상행) 14.0kg/ℓ • E 300 3,498cc, 1,790kg, 7G-TRONIC PLUS, 4000회/12.7km/ℓ(도시상행) 8.4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1.0km/ℓ, 40.93회/100km(복합상행) 13.3kg/ℓ • E 300 4MATIC 3,498cc, 1,800kg, 7G-TRONIC PLUS, 4000회/11.9km/ℓ(도시상행) 8.0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0.9km/ℓ, 38.92회/100km(복합상행) 14.7km/ℓ, 38.92회/100km(복합상행) 13.0kg/ℓ • E 400 4MATIC 2,996cc, 1,935kg, 7G-TRONIC PLUS, 4000회/11.3km/ℓ(도시상행) 8.1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11.5km/ℓ, 38.92회/100km(복합상행) 13.0kg/ℓ • E 63 AMG 4MATIC 5,461cc, 2,00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4000회/7.6km/ℓ(도시상행) 6.5km/ℓ, 33.65회/100km(고속상행) 9.3km/ℓ, 38.92회/100km(복합상행) 22.0kg/ℓ

※ 본 연비는 JIS2005에 의한 연비시험 도로상, 운전방법, 차량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